

# 복귀 하루 만에... 나주환, 허리부상에 다시 재할군



**KIA-SK전 타격 연습 중 허리 통증 호소를 시킨 내야 줄부상 속 공·수서 역할 특특 황윤호 1군 콜업... 두달 반만에 다시 '기회'**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내야수 나주환이 허리 디스크로 하루 만에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KIA는 27일 SK 와이번스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엔트리를 변경했다. 전날 '고졸 루키' 박민을 대신해 이름을 올렸던 나주환이 다시 엔트리에서 빠졌다. 나주환은 지난 20일 허리 근육통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26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앞서 1군에 돌아왔다. KIA 윌리엄스 감독은 복귀에 맞춰 나주환의 선발 출장을 준비했지만 라인업이 급히 변경됐다. 타격 연습을 하며 경기를 준비하던 나주환이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검진 결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으면서 나주환이 재할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KIA에는 아쉬운 부상 소식이다. 선수 인생 갈림길에 섰던 나주환은 무상 트레이드로 SK에서 KIA로 이적, 새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김선빈, 류지혁의 줄부상 속에서 나주환은 64경기에 출전하면서 내야의 중심이 됐다.

204타수 57안타로 0.279의 타율을 기록한 나주환은 결정적인 순간 6차례 담장을 넘기며 타석에서 쓸쓸한 활약을 해냈다. 무엇보다 고민 많은 3루 자리에서 노련한 수비를 과시하면서 공·수에서 알토란 같은 선수가 됐다. 특히 SK에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이번 문학 원정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다. 나주환은 올시즌 친정 SK를 상대로 6경기에 나와 24타수 11안타를 기록하면서, 무려 타율이 0.458에 이른다. 5월 23일 문학원정서 김태훈을 상대로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장식한 나주환은 6월 13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는 문승원을 상대로 스리런을 날리면서 결승타도 기록했다. 나주환을 엔트리에서 말소한 KIA는 대신 황윤호를 1군으로 불러들였다. 황윤호는 올 시즌 내야의 전천후 선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공·수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6월 8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내야에 부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1군으로 복귀한 나주환이 허리 디스크로 27일 다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 NC, 학폭 논란 김유성 지명 철회

학폭위 징계 확인... 중학생 시절 논란 끊이지 않자 뒤늦은 조치

NC 다이노스가 '학폭 논란'의 중심에 선 김유성(김해고)의 1차 지명을 철회했다. NC는 27일 "김유성의 2021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철회한다"며 "해당 선수는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NC는 지난 24일 2021신인 1차 지명 선수로 우완 정동파 투수 김유성을 낙점했다. 하지만 지명 발표 후 구단 홈페이지 등에 김유성이 김해 내용 중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NC는 2017년 7월 김유성이 내용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1월에는 왕원지방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20시간의 심리치료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NC는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이 김유성 선수측으로부터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구단이 김유성 선수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도울 예정이다"고 입장문을

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27일에도 구단 홈페이지에 '피해 학부모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건 당시 김유성측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논란 발생 이후의 대처, 구단스카우트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담긴 내용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NC는 지명 철회 조치를 취했다. 학폭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신인 지명 때는 키움(당시 넥센) 하이로즈와 안우진이 KBO를 흔들었다. 안우진은 6억원이라는 계약금을 받은 특급 유망주였지만 휘문고 시절 배트와 공으로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KBO가 들끓었다. 안우진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3년 자격정지, 구단의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KBO 팬들의 시선은 끈질기다. 한편 1차 지명권이 철회되면서 김유성은 2차 지명 대상자가 됐다.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폭력'이 KBO리그의 뜨거운 단어가 된 상황에서 김유성을 선택할 구단은 없어 보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미켈슨 '시니어 거물 신인' 입증

PGA 챔피언스투어 데뷔전 우승... 최경주 공동 7위

필 미켈슨(50·미국·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데뷔전에서 우승했다. 미켈슨은 27일 미국 미주리주 리지데일의 오자크스 내셔널(파71·7036야드)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찰스 슈와브 시리즈 옛 오자크스 내셔널(총상금 300만달러)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로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22언더파 191타의 성적을 낸 미켈슨은 2위 팀 퍼트모빅(미국)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처음 출전한 챔피언스투어 대회를 제패했다. 우승 상금은 45만달러(약 5억3000만원)다. 챔피언스투어는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대다. 1970년 6월생인 미켈슨이 챔피언스투어 대회에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만 50세를 넘었지만, 여전히 나이 제한이 없는 PGA 정규 투어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2019-2020시즌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에 실패하자 9월 17일 개막하는 US오픈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 나왔다. 사흘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미켈슨은 PGA 챔피언스투어 사상 20번째로 데뷔전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가 됐다.



챔피언스투어 데뷔전에서 우승한 최근 사례는 이달 초 끝난 옐리 챔피언십의 짐 퓨릭(50)이 있었다. 찰스 슈와브 시리즈 옛 오자크스 내셔널에 출전한 최경주(50)는 최종합계 13언더파 200타로 어니 엘스(남아공) 등과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챔피언스투어 세 번째 출전 만에 처음으로 '톱10'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 US오픈, 어차피 우승은 조코비치?

31일 사상 첫 무관중 경기 개막  
코로나 여파 스타급 선수들 대거 불참  
女 단식, 윌리엄스 우승 '관심'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이 31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일 0시에 첫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첫 대회로 1월에 열린 호주오픈은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에 끝났고, 5월 프랑스오픈은 9월로 순연됐다. 6월로 예정됐던 윌리엄스는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 이번 US오픈은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메인 코트를 제외한 코트에는 선수를 두지 않고 경기가 열린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가 무관중으로 열리는 것은 올해 US오픈이 처음이다. 대회장에 모이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예선을 별도로 치르지 않고, 복식 출전 조도 예년의 64개 팀에서 32개로 축소됐다. 대회 총상금 역시 관중 입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5720만달러에 비해 6.7% 감소한 5340만달러로 책정됐다.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300만달러(약 35억6000만원), 남녀 단식 본선 1회전 탈락 선수에게 주는 상금은 6만1000달러다. 주요 선수들도 대거 불참한다. 지난해 남녀 단식 우승자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과 비앙카 안드레스쿠(6위·캐나다)가 모두 불참하는 것을 비롯해 남자 단식에 로저 페더러(4위), 스탠 바브링카(15위·이상 스위스), 가엘 몽피스(9위·프랑스), 닉 키리오스(40위·호주) 등도



조코비치



윌리엄스

나오지 않는다. 여자 단식은 세계 1위 애슐리 바티(호주)를 필두로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 엘리나 스비톨리나(5위·우크라이나), 키키 베르텐스(7위·네덜란드), 벨린다 벤치치(8위·스위스) 등 세계 랭킹 8위 이내 선수 가운데 6명이 불참한다. 남자 단식에서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되는 가운데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 다닐 메드베데프(5위·러시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6위·그리스), 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 등 20대 선수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춘추 전국 시대'가 예상되는 여자 단식에서는 세

리나 윌리엄스(9위·미국)가 2017년 9월 출산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한국 선수로는 권순우(70위·CJ 후원)가 남자 단식 본선에 출전한다.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 네 차례 출전했으나 아직 1승이 없는 권순우는 이번 대회에서 첫승에 도전한다. 정현(142위·제네시스 후원)은 이번 대회 예선이 폐지되면서 본선 진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같은 기간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 포항제철고 U18 챔피언십 우승

금호고 엄지성, 5경기 8골 '특점왕'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이 포항제철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특점상 트로피는 광주 금호고 엄지성이 차지했다. 포항 U18인 포항제철고는 지난 2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울산현대고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오재혁의 멀티골에 힘입어 3-1승리를 거뒀다. 포항의 대회 두 번째 우승이다. 대회 내내 맹활약을 하며 우승을 이끈 홍윤상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공격상(최민서), 수비상(장성돈), 골키퍼상(박은우), 베스트 영플레이어상(김용학) 등 포항이 개인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특점상은 광주 금호고의 엄지성이 가져왔다. 엄지성은 서울이랜드 U18(서울)와의 대회 첫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6-0 대승을 이끄는 등 두 차례 헤트트릭 포함 5경기에서 8골을 넣으며, '특점왕'에 등극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쿨'한 포포프

LPGA, 코로나로 규정 변경... '메이저 킴'되고도 다음달 대회 못나가

"그래도 괜찮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AIG 오픈에서 우승하고도 9월에 열리는 다음번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 출전하지 못하는 조피아 포포프(독일)가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한 결정"이라면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독일 쾰른에 머무는 그는 27일 골프 채널 등과 전화 인터뷰에서 "메이저대회 우승하면 다음번 메이저대회 출전하는 게 당연한데 나한테는 실망스러운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상황이 평상시와 다르다. 메이저대회가 다들 연기됐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 다른 모든 선수에게는 공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받은 5년 투어 카드 효력은 9월 18일 개막하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